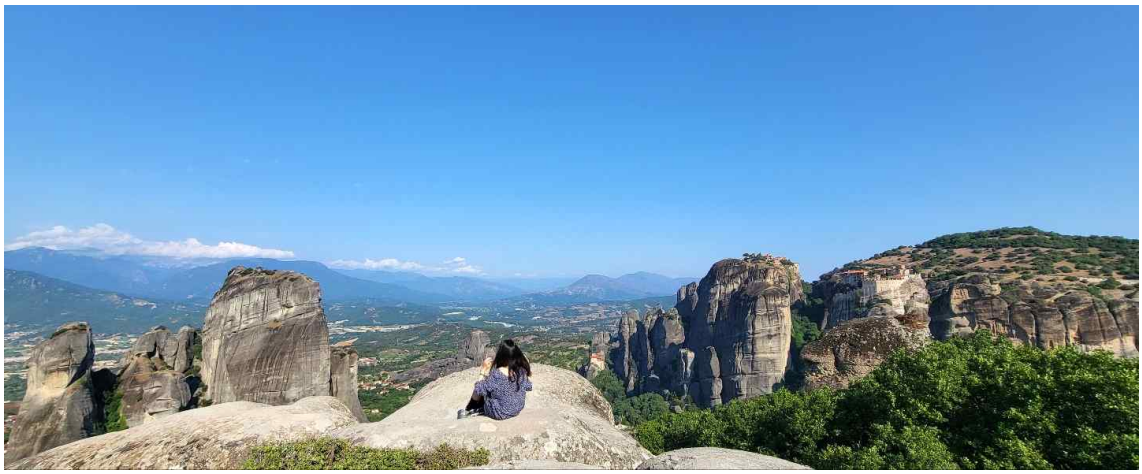
그리스를 그리다 : 그리스의 하늘, 메테오라의 발라암 수도원

김서현

조식을 든든히 먹고 이제는 집과 같이 익숙해진 투어 버스에 또 몸을 실었다. 비로소 6일차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미 아테네에서부터 메테오라(Meteora, Μετέωρα)까지 달려오는 기나긴 길목 속에서 난 이미 충분히 올라올 대로 높은 산속에 숨겨진 마을로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목적지로 향해야 할 수도원은, 그보다도 더, 한 층 위 높은 곳에 꽁꽁 숨겨져 있구나 싶었다. 버스는 굴곡진 언덕, 비탈진 좁은 도로를 지나 끊임없이 오르며 한참을 덜컹거렸기 때문이다. 내가 탄 버스는 높디높은 봉우리들 사이로 속속들이 솟아있던 짙은 초록빛 산등성이 안을, 그 안에 숨겨진 신비의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수도원 마을 '메테오라'라는 지명은, '메테오로(μετέωρο)'의 중성 명사의 복수 형태인 "유성, 운석"을 일컬으며, 형용사 형태로 쓸 때 "공중에 매달려 있는"이라는 뜻을 일컫기도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었다.



게다가 풍경이 곁들여진 길의 중간에 가이드님이 버스를 세우셔서 투어팀이 탁 트인 하늘과 진기명기(珍技名技)하게 조각된 돌기둥을 배경으로 잊지 못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널따란 돌로 된 봉 위에 서서 발밑을 바라보니,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내가 높은 고도에 위치해 있음을 실감했고. 탁 트인 시야를 꽉 채우는 그리스의 초록빛 나뭇잎들은 마치 그에 상응하리만치 푸른빛으로 넘실거릴 먼 반대편의 그리스 바다를 연상시켰다. 창문을 사이로 보던 풍경을 아무런 장해물 없이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만끽

한 후에, 나를 포함한 팀은 다시 버스에 올라서 최종 목적지로 향했다. 그러다 버스가 수도원에 가까이 다다를 때 즈음 가이드님께서는 중간중간 높은 돌등성이 사이에 파인 구멍들을 가리키시며, 수도원이 건설되기 이전 당시 오스만 제국의 종교 탄압 정책 아래에서 산속에 최초로 숨어 들어와서 그리스 정교회 신앙을 지키고자 했던 순교자들의 역사를 되새겨 주셨다.

어쩌면 서양 문학을 태동시킨 뿌리 깊은 두 사상 중 하나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닐까, 나는 복잡한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스 문명(헬레니즘, Hellenism)과 함께 서양문화/문학의 뿌리가 되어 오랜 세월 자양분을 공급한 것은 기독교 사상(헤브라이즘, Hebraism)이다. 헬레니즘이 인본주의, 현세중심을 강조하며 이후 서양 문예사조인 고전주의(Classicism), 자연주의(Naturalism) 등으로 전개되었다면,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 내세중심을 지향하면서 이후 낭만주의(Romanticism), 상징주의(Symbolism) 등과 같이 서양 문학사에 중대한 족적을 남긴 작품들로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헤브라이즘의 성격 및 특징은 고대 이스라엘인의 종교(구약성서)에 근원을 둔다. 성서를 보면 유대인 스스로 '히브리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브라이'라는 말에는 '방황하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과 달리 성서에 나타나는 신은 유일신이며 완전한 인격적 존재여서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믿음을 요구한다. 따라서, 헤브라이즘이란 헤브라이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유대교 및 그들에게서 출발한 종교적이고 금욕적인 기독교적 세계관을 문화사적 입장에서 일컫는 말로 헬레니즘과 더불어 서양사상을 형성해 온 중요한 사조(思潮)로 신에 대한 복종과 윤리적 행동을 위하여 다른 모든 이상들을 포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끝없이 펼쳐지는 아찔한 돌기둥의 풍경을 보면서, 이처럼 하나의 신앙, 믿음에 한 사람의 모든 생을 다 바쳐서 이토록 척박한 땅에 삶의 터전을 일구어 내며, 삶에 대한 태도를 철저히, 그리고 숭고히 고수할 수 있었던 과거 메테오라에 자리를 잡은 수도사들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바치게 되었다. 그들의 신앙적 혈쟁과 그들을 보호하고자 했던 서방세계의 화합이 결국 찬란할 서양 문명을 일깨우고 추동 시킨 게 아닐까, 싶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생각을 하는 와중에, 어느새 투어버스는 내가 일정상 방문할 발라암 수도원에 도착해 있었다. 발라암 수도원(The Monastery of Varlaam)의 역사는 1350년도에 발라암(Varlaam)이라는 수도자가 높이 373m의 바위에 올라 작은 성소와 몇 개의 방을 지으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아직도 해당 수도원은 엄격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기에, 규율에 따라서 여자인 나는 바지가 아닌 치마를 입어야 했으며, 무릎을 가리기 위한 긴 스카프를 허리에 둘러서야 비로소 입장을 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사소한 질서 속에서도 기독교의 근원적 사상인 헤브라이즘만의 특징을 떠올릴 수 있었다. 헤브라이즘에선 인간적 자유주의는 배제되고 신에 대한 경배와 신앙이 앞선다. 또한 현세의 삶보다 내세를 중시하기 때문에 육체 및 욕망은 올바른 행위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척하고 금욕적인 경향을 대신 추구하는데, 이러한 신앙자들의 믿음이 발라암 수도원의 복장 규율 속에서도 녹아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또 이토록 고귀한 자연 풍경들을 보면서, 난 그리스 정교회와 헬레니즘이 이끈 후세대의 문예사조인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바이런의 시 한 편이 떠올랐다. 낭만주의는 헬레니즘이 이끌어낸 형식의 사조인 고전주의에 반발하여 일어난 사조로, 자유분방을 구가하고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형식의 타파를 주장하며 주로 감정의 해방, 미지의 세계 동경, 끝없는 공상, 미묘한 정서, 자연에 대한 열애를 표했는데, 영국의 대표작가인 바이런(George Gordon Lord Byron)이 이러한 시들을 많이 썼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안에 살지 않고
나는 내 안에 살지 않고,
내 주변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내게 높은 산은 하나의 감동이다,
그러나 인간과 도시의 소음은 괴로움이다:
자연에는 싫어할 것이 하나 없다,
내키지 않게 육체의 사슬에 묶여,
피조물에 속해 있지만 영혼은 달아나,
하늘이며, 산정이며, 굽이치는 대양,
또는 별들과 뜻깊게 어울린다." (680-689행)

"I Live Not in Myself
I live not in myself, but I become
Portion of that around me; and to me
High mountains are a feeling, but the hum
Of human cities torture: I can see
Nothing to loathe in nature, save to be
A link reluctant in a fleshly chain,
Classed among creatures, when the soul can flee,
And with the sky, the peak, the heaving plain
Of ocean, or the stars, mingle, and not in vain." (680-6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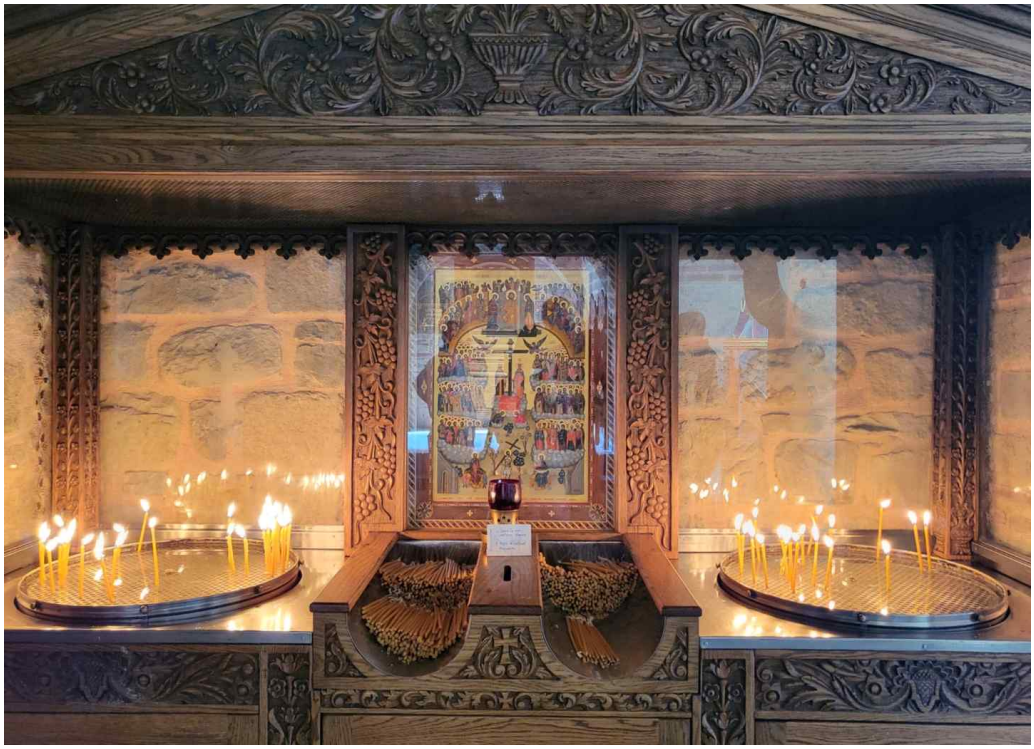
나는 바이런의 『차일드 해럴드의 순례』 중에서 캔토 3, 시 72 (*Childe Harold's Pilgrimage*, Canto III, Verse 72)를 마음속으로 읊으면서 어쩌면 수도승들은 속세에 놓여있을 때 끊임없이 고통스러워하고 물질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but the hum Of human cities torture"). 그렇게 귀 기울이게 되는 자신 안의 욕망, 이기심 같은 개인적 감정과 자기 중심적 삶으로부터 벗어나서("I live not in myself") 신의 지시를 따르는 '주변인'의 삶("but I become Portion of that around me")을 자처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 자연을 찾아 이곳에 은거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의 부름에 부합하는 고귀한 영혼을 쫓기 위해서 말이다("A link reluctant in a fleshly chain, Classed among creatures, when the soul can flee"). 또 실제로 오스만 제국의 압박을 피해 어느 정도 메테오라에 수도원 마을이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은 후에도, 많은 수도승들이 굳이 이 아찔한 위치에 놓여있는 신앙 시설로 자신들의 신앙심을 증명하고자 찾은 이유가 바로 어지러운 속세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라고 하니. 확연히 도시로부터 멀리 동떨어진 이세계(異世界)에 가까운 이 신비로운 종교 마을은 자연과 함께 어울러서 개개인의 정신을 현실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는 신적 힘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문을 통과하여 짤막한 나무다리를 건너니, 수도원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할 돌로 깎인 계단들이 눈앞에 무한대로 펼쳐졌다. 나는 이미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했던 산길을 올라온 것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나의 무지이자 어리석음이었던 것 같다. 신께 가까이 가닿고자 했으며, 또 온갖 종교적 핍박으로부터 도피하고자 멀리 도망 온 순교자들의 혈투는 차마 내가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는 높고도 맑은 경지에 그 계단들을 통해 도달해 있는 것 같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단을 밟고 올라갈 때 눈에 띄었던 것은, 바로 정말로 라푼젤이 갇혀있었던 탑처럼, 저 멀리서 수도원의 지붕 밖으로 점 같아 보이는 자그만 창문이자 문 같은 것이 하나 네모나게 나있고, 그 사이로 라푼젤의 기다란 머리카락과 같이 한 줄로 내려져있던 누런 밧줄이었다. 이 사각형 창(窓) 같은 것은 본래 외부 세계로 통하는 문과 계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수도원의 기중탑에서 도르래를 이용하여 계곡 절벽에서 용감한 순례자 및 외부 물품들을 수직으로 373m 높이로까지 감아올리는데 밧줄과 그물을 사용하고자 만든 출구이자 입구였던 것이다! 나는 그 허공에 난 아슬한 문을 통해 한 때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었던 그리스도교의 신앙적인 전통 생활 방식과, 그것을 고수하고 유지하고자 했던 수도승들의 강인한 믿음을 상징적으로, 깊숙이, 마음 끝에서부터 불끈 느낄 수 있었다. 게다가 발라암에 오르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신에게로 회귀하는 명예로운 죽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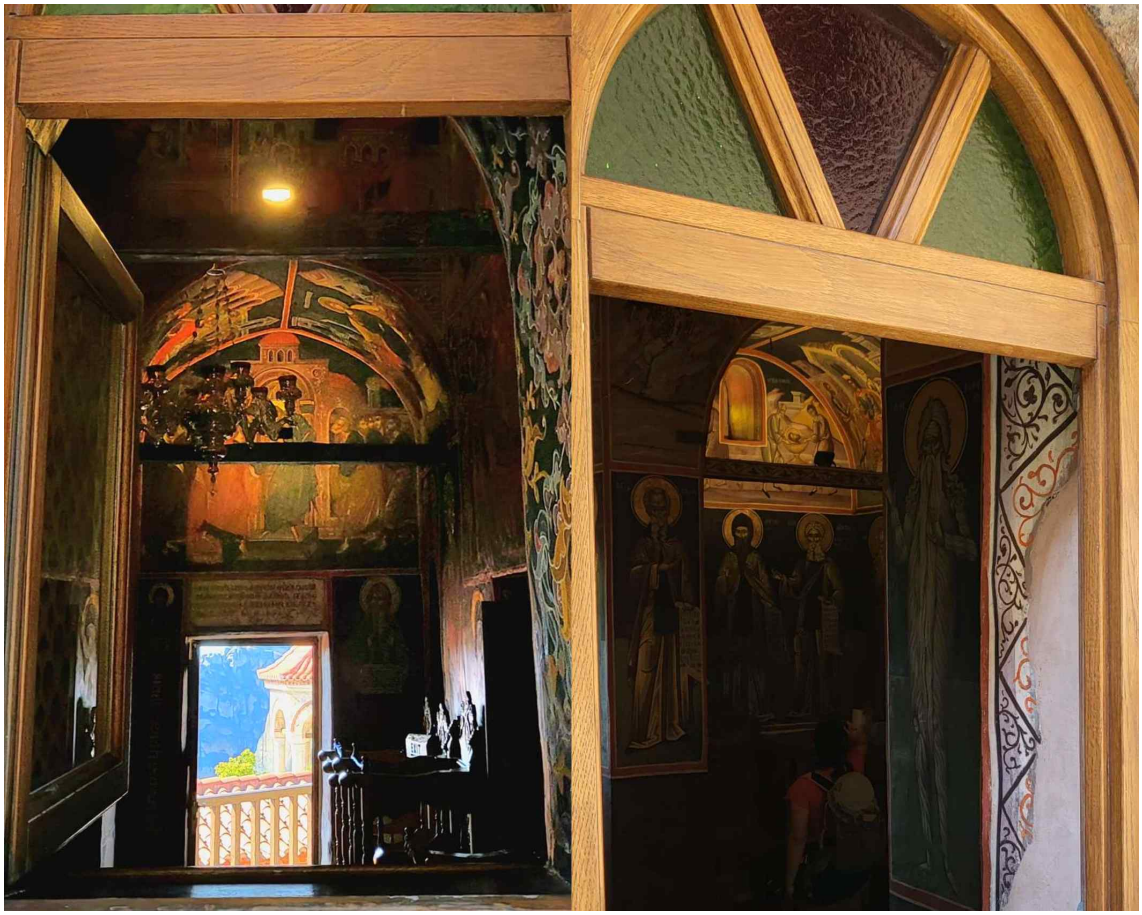
맞이했다고 평했다 하니!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시각에선 순수함(pure)을 넘어선 순진함(naive)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도, 그 얇디얇은 밧줄을 통해 해발 높이 나있는 수도원에 가닿고자 했던 수도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절벽에 온전히 던져서라도 속세와 떨어져 신께 가까이 가려는 진실된 의지를 갖추고 있었을 것이리라.

하나님께 가까워지기 위하여 높은 해발 고도로 오르는 계단을 딛고 디뎌서 평지를 밟으며 드디어 수도원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나는 비로소 고귀한 신앙심 속에 포근하게 잘 안착했다는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밤하늘에 수 놓여있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들처럼, 수도원의 예배당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문 앞에는 초 봉헌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마한 밀랍 초들이 나지막이 봉헌대를 밝히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하늘에 계시는 신의 손길을 이곳까지 찾아온 신자들에게 따뜻이 잘 이어주고 있는 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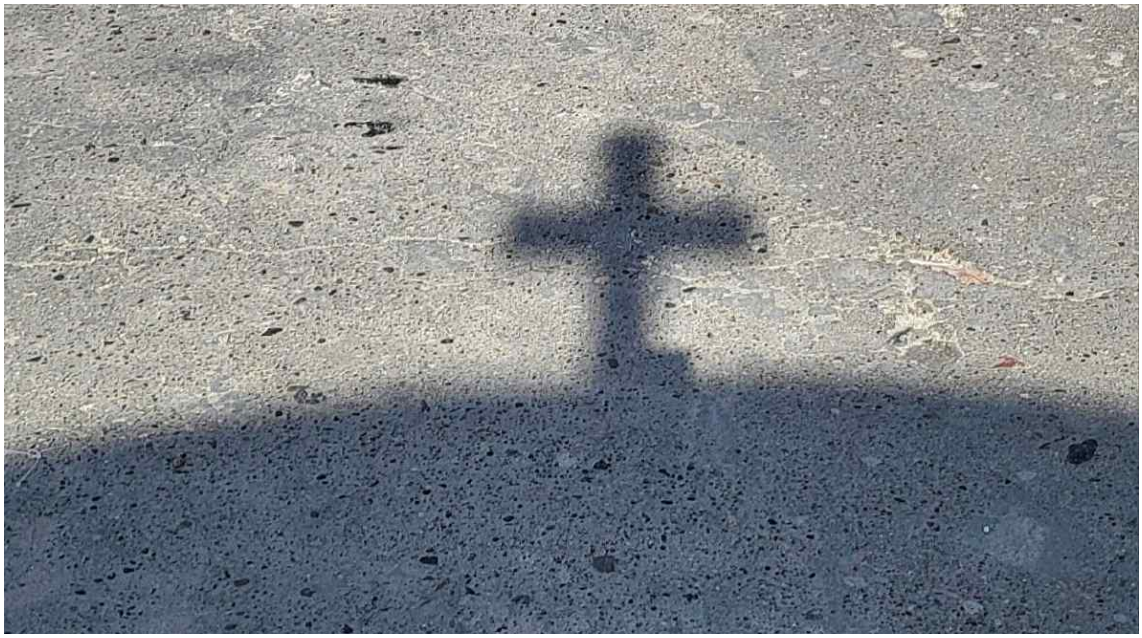
또 무신론자인 나에게는 조금 생소하게도, 몇 년 전 성탄절에 친구 교회에 놀러 갔을 때 들어봤던 멜로디가 돋보였던 찬송가와는 다르게, 예배당 안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는 음의 높낮이나 멜로디의 폭이 결코 크지 않았다. 선율과 리듬이 돋보이는 노래라기보다는 낮은음을 붙여 기도문을 외는 소리였다. 인간의 목소리 외에 사용된 악기는 일절 없었으며, 단선율로, 지속 저음의 사용으로만 이루어진 보수적이면서 고정된 묵직한 울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래의 형식 속에서 나는 또 다른 헤브라이즘의 계승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헤브라이즘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물은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객관적 세계의 파악은 사물의 형태에서가 아니라 신과의 영적인 교감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비적인 경향을 보인다. 나는 이러한 사조적 성향. 즉, 감히 구체화될 수 없는 대상과 신적 형상을 형식의 거의 없는 정교회의 단조로운 성가가 자칫하면 비어 보일 수 있는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느꼈다.



노래를 따라 사뿐히 예배당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보이는 정면 벽화는, 왼쪽과 오른쪽을 기준으로 각 천국도와 지옥도를 강렬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그리고 정면을 제외한 벽과 천장에는 안으로 점차 들어가는 나눠진 방을 기준으로 밖에는 예수님과 그를 숭배했던 지지자들이 고통받고 핍박받았던 폭력의 흔적들을,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흔적들을 실감 나고 다채롭게 담아내고 있었다. 나는 이때 정말 묘한 감정을,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아릿한 전율을 통해 느꼈다. 분명 나는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도원에서 울려 퍼지는 나직나직한 성가가, 얼굴을 얕게 간지럽히는 여름 바람이, 그리고 수도원 주변을 마치 작은 천사나 요정과 같이 날아다니며 작게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가. 그리고 시각적으로 마치 점묘화와 같이 미세하고도 섬세하게 그려진 작은 그림들이 모여 결국 한 편의 거대한 서사를 담은 벽화가 주는 충격은. 그 영겁의 세월 속에서 지켜져 왔던 신앙과 믿음이 주는 강력한 생존력을 나에게 전달해 주었으며, 나는 각 소리의 음과 가는 그림의 선을 듣고 보면서 그 숭고한 세계 안에 던져진 작디작은 나라는 존재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무거운 경모를 담고 있는 공간이 주는 위력 속에서, 나는 한 시대를 짧게 살다 소멸하게 될 나라는 인간 존재에 관해서 반추해 보게 되었다. 성인(成人)은 되었을지언정, 성인(聖人)의 길로까지 나아가진 못한 나약한 내가, 현재를 살아나가면서 인간의 도리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최소한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여행을 계기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곱씹어 보았다.

은은하게 내리쬐는 광명의 태양빛을 받으며 수도원의 구석구석을 올곧이 다 음미하고 다시 돌계단을 걸어 내려와 수도원의 정문으로 되돌아왔을 때, 나는 문득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산속에 숨겨진 수도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다리에서부터, 밧줄을 통한 도르래, 그리고 돌계단과 투어버스까지. 그리고 조금 더 전반적으로 이러한 '등산' 행위를 조망해 본다면, 산의 정상에 도달하기 위한 등산로는 등산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국 나는 하느님께 이르는 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누군가가 택한 어떤 한 경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까지 이르기 위한 경로가 단지 다른 이와 다를 뿐이다. 그리스 정교회를 포함하여 이를 억압하고자 했던 이슬람교까지... 각 종교마다 신께 향하기 위해, 올바르게 살고자, 저마다 각자 다른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향할 뿐, 이와 관련하여 어찌 감히 타인이 옳고 그름을 재단하고 따질 수 있을까.

메테오라에서 아테네로 돌아갈 때 마주쳤던 (종교 전쟁으로 인해 형성된) 난민촌

또 비단 종교뿐만이 아니라 서양 문명을 일으켜 세운 두 양대 산맥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살펴보아도 이 두 사조 역시 이분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없다는 것 역시 깨닫게 되었다. 성서에서 제시하는 구원사상이 정점에 달하면서 종교적으로 그리스

도교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종교의 형성기에 그리스도교 신학이자 헤브라이즘은 당시의 쇠퇴해가는 헬레니즘과 접촉 및 이에 영향을 받아 이론적· 철학적 성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쩌면 종교를 포함한 이 두 갈래의 문예사조 역시 이분법적으로 완전히 불리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우습기도 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시도로 읽혔다. 그리스인이 예술과 과학과 철학으로 세계 문화에 공헌했다면 히브리인들은 신앙과 도덕으로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며 지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적 사유와 직관적이고 신비적이며 감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라이즘적 사유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서양 문학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한 이분법적인 시선과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 두 대비되어 보이는 사조가 결국엔 근현대의 서양문명과 문학을 첨예하게 발달시켜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로부터 태동된 오늘날까지의 문화사를 통틀어서 관망해 본다면, 나는 고대의 그리스인들과 중세의 종교인들이 세대를 걸쳐 오면서 힘을 합치고 세계를 발달시켜 온 것과 같이, 이제는 현재의 현대인은 문명과 사회가 도달해야 할 정도를 구분과 차별 대신 융화와 화합을 통해서 스스로를 비롯한 개인과 집단이 강구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미약하게나마 세계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작은 성인(聖人)'으로 향하는 길이 아닐까.